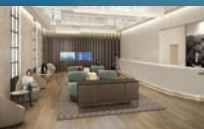

VIKTORIA MULLOVA & GENEVA CAMERATA

CONDUCTOR **DAVID GREILSAMMER**

CREDIA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행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졌습니다.
더욱 쾌적하고 편리해진 대한항공의 특별한 서비스를 새로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경험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프로그램 PROGRAM 02

아티스트 PROFILE 08

바이올린 조슈아 벨 빅토리아 뮐로바 Viktoria Mullova
지휘 데이비드 그렐자메르 David Greilsammer
연주 제네바 카메라타 Geneva Camerata

프리뷰 PREVIEW 16

인터뷰 INTERVIEW 21



주최

CREZIA
INTERNATIONAL

후원

KOREAN AIR



Wirtschafts-Eigenen
Confédération suisse
Confederazione Svizzera
Confederaziun svizra

Embassy of Switzer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2018년 6월 8일 (금)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데이비드 그렐자메르

바이올린 | 빅토리아 몰로바

첼로 | 마라 미리봉

연주 | 제네바 카메라타

C. 아이브스 1874-1954 **대답없는 질문** 00'

F. 멘델스존 1809-1947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Op.64** 00'

- I.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 II. 안단테
- III. 알레그레토 논 트로포
- IV.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중간휴식



G. 거쉬인 1898-1937 **'포기와 베스' 주제에 의한 변주곡** 00'

조너선 케런 1978-

L. v. 베토벤 1870-1827 **교향곡 제 8번 F장조 Op.93** 00'

- I. 알레그로 비바체 에 콘 브리오 Allegro vivace e con brio
- II. 엘레그레토 스케르잔도 Scherzando. Allegretto
- III. 템포 디 메뉴에토 Tempo di Menuetto
- IV. 알레그로 비바체 Allegro vivace

-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양곡료 곡은 크레디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pm Friday, 8 June, 2018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David Greilsammer, Conductor

Viktoria Mullova, Violin

Mara Miribung, Cello

Geneva Camerata

C. Ives 1874-1954 **The Unanswered Question** 00'

F. Mendelssohn 1809-1947 **Concerto for Violin and Orchestra in E Minor, Op.64** 00'

I. Allegro molto appassionato

II. Andante

III. Allegretto non troppo

IV. Allegro molto vivace

INTERMISSION
CREDIA

Jonathan Keren 1978- **Variations on Themes from George Gershwin's Porgy and Bess** 00'

L. v. Beethoven 1870-1827 **Symphony No. 8 in F Major Op.93** 00'

I. Allegro vivace e con brio

II. Scherzando. Allegretto

III. Tempo di Menuetto

IV. Allegro vivace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C. 아이브스

대답 없는 질문

음악사상 가장 불가사의하고 독창적인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찰스 아이브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의 청중과 음악학자, 연구가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아이브스는 20세기 초반에 놀랄 만큼 시대를 앞서 간 작품들을 썼으며, 그런 의미에서 의심할 바 없이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깜짝 놀랄 만큼 현대적인 새로운 음악 기법을 고안하고 창조하기 시작했는데, 코네티컷 주의 소도시 출신인 젊은 미국 청년이 어떻게 그토록 급진적이고 독특한 음악적 접근방법을 개발했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서른세 살의 나이로 뉴욕으로 이주한 직후인 1907년, 그는 보험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이 기업의 사장으로 일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작곡을 그만두고 싶었던 것일까? 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음악 대신 다른 직업을 택했던 것일까?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브스는 회사를 창립하고 1년 뒤에 자신의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꼽히는 '대답 없는 질문'을 썼다. 이 신비스러운 작품은 신기원을 이룩한 새로운 음악 언어를 제시하고 있다. 세 그룹으로 분리된 음악가들은 동시에 연주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시간과 공간, 화성적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현악기들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음향을 들려주는 반면 관악기들은 다양한 순간에 갑자기 등장해서 완전히 다른 리듬 체계에서 솟아오른 충격적인 선율을 연주한다. 그리고 동시에 꿈을 꾸는 것처럼 트럼펫이 연주하는 선율을 듣게 되는데, 마치 한 인간의 영혼이 우리에게 아마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 아마도 대답이 없을 질문을...

F.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Op.64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위대한 걸작으로 꼽히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는 당대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이었던 페르디난트 다비트(Ferdinand David)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저명한 독주자는 1845년에 라이프치히에서 이 협주곡을 초연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작곡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면서 자주 친구인 멘델스존을 방문해서 긴밀하게 협력했다. 작품이 어떻게 하면 더 인상적이고 매혹적이고 멋지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귀중한 충고를 했던 것이다. 이 협주곡은 시작 부분부터 듣는 이를 놀라게 한다. 당대의 모든 협주곡처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전통적인 도입 부분 대신 독주자가 시작부터 연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청중은 연주가 시작되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벌써 독주자가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율을 연주하는 것을 듣게 된다. 2악장은 정제되고 우아하며 내밀한 안단테 악장으로 여기서 독주자는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연주하면서 단순하면서도 애수 어린 노래를 부른다. 민요와 대중적인 춤곡에 영감을 받은 마지막 악장은 독주자에게 숨 막히는 명인기를 요구하며, 듣는 이에게는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인 이 협주곡에 어울리는 활기차고 재치 있고 스타일 넘치는 결말을 선사하고 있다.

조너선 케런

조지 거슈윈의 <포기와 베스>

주제에 의한 변주곡

이스라엘 출신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편곡자인 조너선 케런은 <뉴욕타임즈>로부터 오늘날 음악계의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한 명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단체, 독주자들이 그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으며 또 저명한 음반사들이 녹음을 하고 있기도 하다. 언제나 재즈 음악과 민속 음악에 흥미를 갖고 있는 조너선 케런은 제네바 카메라타의 위촉을 받아 조지 거슈윈의 <포기와 베스> 선율에서 영감을 받은 새 작품을 썼다. 1934년에 만들어진 거슈윈의 걸작 오페라 <포기와 베스>는 역사상 최초로 클래식 관현악곡과 오페라, 재즈 음악, 흑인 영가와 아프리카-아메리카 민요를 하나로 결합시킨 작품이다. 조너선 케런은 이 신작에서 거슈윈의 오페라에서 고른 몇몇 주제를 사용했으며, 여기에 탁월한 상상력과 품위를 담아 독주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을 만들었다. (오늘 연주하는 작품의 한국 초연 무대이기도 하다.)

L. v. 베토벤

교향곡 제 8번 F장조 Op.93

베토벤은 1812년 여름에 교향곡 8번 작곡을 시작했는데, 이 무렵 그는 이미 거의 완전히 청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1814년 빈에서 이루어진 초연에서 지휘를 맡았다! 그의 다른 교향곡에 비해 다소 짧은 이 교향곡은 그가 일찍이 쓴 가장 기쁨이 넘치고 빛나며 축제 풍의 작품이기도 하다. 1악장은 밝은 빛이 감도는 '알레그로'로, 활력과 생기, 광채가 흘러넘친다. 한편 2악장은 마치 희극적인 등장인물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오페라에 나오는 익살스러운 장면처럼 들린다. 이 작품에서는 베토벤과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위대한 작곡가인 로시니의 영향을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 3악장은 미뉴에트 형식으로, 이 춤곡은 바로크와 고전주의 시대에는 큰 인기를 누렸지만 베토벤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왈츠에 자리를 내준 상태였다. 물론 이 교향곡의 미뉴에트는 전통적인 것은 아니며, 리듬과 화성에서 놀랄 만한 대목이 가득하다. 그런가 하면 4악장에서는 베토벤의 스승이자 작품이 만들어지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요제프 하이든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 독일의 민속 춤곡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악장은 매우 흥분된 분위기에서, 오케스트라의 모든 연주자에게서 탁월한 명인기를 이끌어내는 가운데 마무리된다.

글 | 데이비드 그렐자메르 (제네바 카메라타 음악감독)
번역 및 감수 | 이준형 (칼럼니스트)

C. Ives

The Unanswered Question

One of the most enigmatic and original composers of history, Charles Ives still fascinates today's auditors, musicologists, and researchers around the world. In the first years of the 20th century, Ives wrote pieces that were incredibly ahead of their time – he was without a doubt one of the greatest visionaries of his period. From an early age, Ives started inventing and creating new musical techniques of stunning modernity – it is hard to understand how a young American boy from a small town in Connecticut developed such a radical and singular musical approach. But in 1907, shortly after arriving to New York at the age of thirty-three, he decides to create... an insurance company! For a few decades, he serves as the director of this very successful business. Did he wish to stop composing? Did his psychological problems made him choose another profession, instead of music? But amazingly, just one year after creating his company, he composes one of his greatest masterpieces, "The Unanswered Question". This mysterious work presents a groundbreaking musical language: three groups of musicians play simultaneously, but in totally different time, space, and harmonic worlds... The string instruments present a calm and peaceful sound atmosphere while the wind instruments suddenly come in at various moments, with striking melodies that come from a completely different rhythmic universe. And, at the same time, like in a dream, we hear the melody of a trumpet, as if it was a human soul, speaking to us, asking us questions that will probably remain unanswered...

F. Mendelssohn

Concerto for Violin and Orchestra in E Minor, Op.64

One of the greatest masterpieces of the German Romantic era, Mendelssohn's Violin Concerto in E Minor was originally composed for one of the most famous violinists of the time, Ferdinand David. This renowned soloist did not only give the world premiere of this concerto in Leipzig in 1845, but also followed the entire compositional process, by frequently visiting his friend Mendelssohn and closely working with him - offering him precious advice on how to make the pieces even more impressive, captivating, and attractive. From its very first measures, the piece surprises the listener: instead of the traditional introduction that was usually played by the orchestra in every concerto of the time, the composer presents here the soloist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piece. After just a few seconds, we already hear the soloist playing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moving melodies ever composed in music history. The second movement is a refined, gracious and intimate "andante" in which the soloist plays as if it was a human voice, singing a simple and melancholic song. Inspired by folk music and popular dances, the last movement demands breath-taking virtuosity from the soloist, offering the auditor a vigorous, witty, and thrilling conclusion to one of the most popular works of all times.

Jonathan Keren
Variations on Themes from
George Gershwin's
Porgy and Bess

The Israeli composer, violinist, and arranger Jonathan Keren has been hailed by The New York Time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voices of today's musical world. His works have been performed by the greatest orchestras, ensembles and soloists around the world, and recorded for prestigious labels. Always interested in jazz and folk music, Jonathan Keren was commissioned by the Geneva Camerata to compose a new piece inspired by musical themes from George Gershwin's "Porgy and Bess". Gershwin's ingenious opera, written in 1934, combine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classical orchestral music, opera, jazz, Gospel Spirituals, and African-American folk songs. In his new composition, Jonathan Keren uses selected themes from Gershwin's opera in order to create, with tremendous imagination and refinement, a new piece for solo cello and orchestra. Tonight's performance will mark the piece's Hong Kong Premiere.

L.v. Beethoven
Symphony No.8 in F Major, Op.93

Beethoven started composing his Eighth Symphony in the summer 1812, at a time when he was almost completely deaf. However, despite his deafness, Beethoven astonishingly conducted in 1814 the premiere in Vienna! Somewhat shorter than his other symphonies, this piece is among the most joyous, luminous, and festive that Beethoven ever wrote. The first movement is a radiant "allegro", full of spirit, liveliness, and brilliance. The second movement sounds very much like a comic scene from an opera, with various funny characters appearing at different moments. We can certainly hear in this music the influence of another great composer who lived at the same period, Rossini. The third movement is a "minuet", a kind of dance that was very popular in the Baroque and Classical era, however, during Beethoven's time, the minuet was not very much in fashion anymore – it had been replaced by the "waltz". The minuet composed for this symphony is indeed not a traditional one: it is filled with many rhythmic and harmonic surprises. In the fourth movement we can certainly hear the influence of Beethoven's teacher, Joseph Haydn, who had died just a few years before the composition of this piece. This movement, which seems to have been inspired by German folk dances, ends with tremendous excitement, demanding extraordinary virtuosity from each musician of the orchestra.

Programme Notes by David Greilsammer

빅토리아 물로바

바이올리니스트

빅토리아 물로바는 모스크바 음악학교와 모스크바 예술 학교에서 공부했다. 1980년 헬싱키에서 열린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우승, 곧 이어 1982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그녀에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후 전 세계의 유명 오케스트라들과 지휘자들과 협연 기회를 가져 온 빅토리아 물로바는 특출한 다재다능함과 음악적 진실성으로 세계에 정평이 나 있다. 물로바의 호기심은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뿐만 아니라 퓨전과 실험음악까지 이를 만큼 폭넓다.

빅토리아 물로바는 정통적인 접근으로 계몽시대 오케스트라(Orchestra of the Age of Enlightenment), 일 지아르디노 아모니코, 베니스 바로크 등 고악기 밴드들과의 컬래보레이션을 진행했다. 물로바는 바흐의 음악을 특히 가까이 하며 바흐는 그녀의 레코딩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물로바의 바흐에 대해 영국 가디언지는 “물로바의 바흐를 듣는다는 것은 살면서 가장 멋진 일 중 하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최근 빅토리아 물로바가 아카데미아 비잔티나 및 오타비오 단토네와 함께 녹음한 바흐의 협주곡들은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물로바의 바흐 솔로 소나타 및 파르티타는 전 세계에서의 극찬과 함께 리뷰에서 별5개를 받으며 그녀의 연주인생에 중요한 기념비적인 존재로 새겨져 있다.

빅토리아 물로바가 현대음악의 창의성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음반 “Through the Looking Glass” 작업을 통해 매튜 발리가 편곡한 월드뮤직과 재즈, 팝을 접하면서이다. 이를 계기로 물로바는 매튜 발리 앙상블과 함께 두 번째 앨범 “The Peasant Girl”로 세계 투어를 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크라이나 농민의 뿌리부터 집시 음악이 20세기 클래식과 재즈 장르에 끼친 영향을 보게 된다. 물로바의 가장 최근 프로젝트인 “Stradivarius in Rio”는 작곡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카에타노 벨로조, 클라우디오 누찌 등이 작곡한 브라질 음악에 영감을 받았다. 같은 이름의 CD는 열광적인 리뷰를 받았고 유럽 전역에 걸쳐 그 프로젝트로 공연을 진행했다. 또한 물로바 자신의 프로젝트만큼이나 프레이저 트레이너(Fraser Trainer), 토마스 라르허(Thomas Larcher) 및 후지쿠라 다이(Dai Fujikura) 등 젊은 작곡가와의 협업에도 열정을 바쳐 왔다.

이런 풍부한 음악적 다양성은 런던의 사우스뱅크, 빈의 콘체르트하우스, 파리 루브르 오디토리엄, 브레멘 뮤직 페스티벌,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헬싱키 뮤직 페스티벌 등 유수 기관에서 찬사를 받아 왔다.

빅토리아 물로바의 2017-18 시즌 주요 연주는 매튜 발리와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마르쿠스 슈텐츠 지휘)와 함께 파스칼 뒤사팽의 “At swim - Two birds”를 초연하고 이후 로마 이탈리아 방송 교향악단(헨릭 나나시 지휘)와의 협연,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Dima Sloboudeniouk 지휘),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파스칼 로페 지휘) 등으로 이어진다.

물로바는 필립스 클래식과 오닉스 클래식에서 발매한 음반들로 많은 상을 수상했다. 지오반니 안토니니지휘에 일 지아르디노 아르모니코와 연주한 비발디 협주곡은 2005년 디아파종 도르 상을 수상했으며 크리스티안 베주이덴후트와 협연한 베토벤 Op.12, No.3 과 크로이처 소나타가 담긴 음반은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 2015년 발매한 프로코피예프 음반도 호평을 받았다.

빅토리아 물로바는 그녀 소유의 스트라디바리우스 1723 ‘Jules Falk’ 이나 과다니니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



VIKTORIA MULLOVA

Violinist

Viktoria Mullova studied at the Central Music School of Moscow and the Moscow Conservatoire. Her extraordinary talent captured international attention when she won first prize at the 1980 Sibelius Competition in Helsinki and the Gold Medal at the Tchaikovsky Competition in 1982 which was followed, in 1983, by her dramatic and much publicized defection to the West. She has since appeared with most of the world's greatest orchestras and conductors and at the major international festivals. She is now known the world over as a violinist of exceptional versatility and musical integrity. Her curiosity spans the breadth of musical development from baroque and classical right up to the most contemporary influences from the world of fusion and experimental music.

Her interest in the authentic approach has led to collaborations with period instrument bands such as the Orchestra of the Age of Enlightenment, Il Giardino Armonico, Venice Baroque and Orchestre Révolutionnaire et Romantique. Viktoria has a great affinity with Bach and his work makes up a large part of her recording catalogue. Her interpretations of Bach have been acclaimed worldwide and led Tim Ashley to write, "To hear Mullova play Bach is, simply, one of the greatest things you can experience..." in the Guardian. Her most recent disc of Bach Concerti with the Accademia Bizantina and Ottavio Dantone has been highly praised and her recording of Bach's solo sonatas and partitas represents a significant milestone in Viktoria's personal journey into this music. The recording received 5-star review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she has embarked on an international several season-long, series of solo Bach recitals.

Her ventures into creative contemporary music started in 2000 with her album "Through the Looking Glass" in which she played world, jazz and pop music arranged for her by Matthew Barley. This exploration continued with her second album 'The Peasant Girl' which she has toured around the world with the Matthew Barley ensemble. This project shows a different side to Viktoria as she looks to her peasant roots in the Ukraine and explores the influence of gypsy music on the classical and jazz genres in the

20th Century. Her most recent project, "Stradivarius in Rio" is inspired by her love of Brazilian songs by composers such as Antonio Carlos Jobim, Caetano Veloso and Claudio Nucci. A CD of the same name has been enthusiastically received and she is now presenting the project in planned concerts throughout Europe. As well as her own projects, she has also commissioned works from young composers such as Fraser Trainer, Thomas Larcher and Dai Fujikura.

This rich musical diversity has been celebrated in several high-profile residences, including London's Southbank, Vienna's Konzerthaus, the Auditorium du Louvre in Paris, Musikfest Bremen, Barcelona Symphony Orchestra and Helsinki Music Festival.

Highlights of her 17/18 season include the world premiere of Dusapin's "At swim - Two birds" with Matthew Barley and the Netherlands Radio Philharmonic Orchestra (Markus Stenz) and further performances with the Orchestra Sinfonica Nazionale RAI (Henrik Nánási), Gewandhausorchester (Dima Sloboudeniouk) and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Pascal Rophé). She tours Europe with Paavo Järvi and the Deutsche Kammerphilharmonie Bremen playing Prokofiev Violin

Concerto No.2, the Estonian Festival Orchestra for Brahms & Sibelius Violin Concertos and visits Asia with Geneva Camerata. With Matthew Barley, Paul Clarvis and João Luís Nogueira Pinto, Viktoria performs 'Stradivarius in Rio' in various locations.

Mullova's extensive discography for Philips Classics and Onyx Classics has attracted many prestigious awards. Her recording of the Vivaldi Concertos with Il Giardino Armonico and directed by Giovanni Antonini, won the Diapason D'Or of the Year award for 2005 and her recording featuring Beethoven's Op.12, No.3 and Kreutzer Sonatas with Kristian Bezuidenhout won immense critical acclaim. Other discs have included the Schubert Octet with the Mullova Ensemble, "Recital" with Katia Labèque, Bach Sonatas with Ottavio Dantone and "6 Solo Sonatas and Partitas" by JS Bach. Mullova's most recent all-Prokofiev disc (released in August 2015) has already received critical acclaim.

Viktoria either plays on her 'Jules Falk' 1723 Stradivarius or a Guadagnini violin.

데이비드 그렐자메르 DAVID GREILSAMMER

지휘자 | Music and Artistic Director



폭넓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 데이비트 그렐자메르는 오늘날 가장 대담한 클래식 아티스트로 꼽힌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데이비트 그렐자메르의 음반 중 두 개를 ‘올 해의 음반’ 수상작으로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솔로 리사이틀 “Scarlatti:Cage:Sonatas”를 ‘올 해의 가장 중요한 음악 이슈’ 열 가지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바로크부터 현대 음악까지, 다수의 획기적인 음악 프로젝트 창작자로서 칭송받는 데이비트 그렐자메르는 또한 모차르트 연주로도 저명하다. 파리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마라톤 연주로 하루에 진행하는가 하면, 최근 제네바에서 한 시즌에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곡 전곡을 연주 및 지휘하기도 했다. Naïve 레이블에서는 네 장의 음반을 발매하였고, 최근 소니 클래식 레이블에서는 세 장의 음반으로 수상하였다.

2013년부터 데이비트 그렐자메르는 제네바 카메라타(이하 GECA)의 음악 및 예술감독으로 부임하고 있다. 이 모험심 강한 앙상블과 함께 그는 매 시즌 세계 투어로 베를린 필하모니, 파리 샤틀레, 런던 킹스플레이스, 베이징 NCPA, 상하이 오리엔탈 아트센터, 멕시코 센트로 나시오날 데 라스 아르테스 등을 포함하여 35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다. 데이비트 그렐자메르와 GECA는 주기적으로 무용수, 안무가, 배우, 비주얼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재즈, 세계음악, 락, 포크음악과도 협업하고 있다.

최근에는 BBC 필하모니,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찰츠버그 모차르티움 오케스트라, 함부르크 심포니, 밀라노 라베르디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홍콩 심포니에타, 멕시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도쿄 교향악단과의 협연에서 객원지휘자/솔로리스트로 공연하였다. 또한 영국 위그모어 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 베르비에 페스티벌, 브뤼셀 살 플레지, 뉴욕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 그리고 워싱턴 케네디센터 등지에서 솔로 리사이틀을 펼쳤다.

Known for his eclectic and fascinating programmes, conductor and pianist David Greilsammer is recognised as one of today’s most audacious classical artists. The New York Times has recently awarded two of David Greilsammer’s albums as Recording of the Year, in addition to selecting his solo recital “Scarlatti:Cage:Sonatas” as one of the ten most important musical events of the year.

Praised as creator of numerous ground-breaking musical projects, ranging from baroque to contemporary music, David Greilsammer has also been celebrated for his Mozart performances. He has performed in Paris all of Mozart’s piano sonatas in a one-day “marathon” and recently, he has played and conducted in Geneva all of Mozart’s twenty-seven piano concertos, in one season. In the past years, David Greilsammer has released four recordings on the Naïve label, and more recently, three prize-winning albums on the Sony Classical label.

Since 2013, David Greilsammer serves as Music and Artistic Director of the Geneva Camerata (GECA). With this adventurous ensemble, he gives over thirty-five concerts per season, including international tours that have taken him and the ensemble to venues such as the Berlin Philharmonie, Théâtre du Châtelet in Paris, Kings Place in London, NCPA in Beijing, Oriental Art Center in Shanghai, and Centro Nacional de las Artes in Mexico. David Greilsammer and GECA regularly collaborate with dancers, choreographers, actors, visual artists, as well as jazz, world, rock, and folk musicians.

David Greilsammer has recently performed as guest conductor/soloist with the BBC Philharmonic, San Francisco Symphony, Salzburg Mozarteum Orchestra, Hamburg Symphony, Milano La Verdi Orchestra, 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Hong Kong Sinfonietta, Mexico National Symphony Orchestra, and the Tokyo Metropolitan Symphony. He has also given solo recitals at the Wigmore Hall in London, Concertgebouw in Amsterdam, Verbier Festival, Salle Flagey in Brussels, Mostly Mozart Festival in New York, and Kennedy Center in Washington.

제네바 카메라타

GENEVA CAMERATA

swiss arts council
prohelvetia



대담하고 혁신적이며 모험심 강한 제네바 카메라타는 젊은 세대의 가장 멋지고 창의적인 솔로리스트들이 모여 이루어졌다. 언론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앙상블' 이라고 칭송받는 GECA는 바로크부터 클래식, 현대음악, 일렉트로닉, 재즈, 락, 그리고 월드뮤직까지 모든 시대와 스타일의 음악을 다룬다. 매 시즌 35회 이상의 연주를 펼치며 음악, 춤, 극, 서커스, 영상을 아울러 다방면에 걸친 음악 프로젝트를 창조해 낸다.

지휘자 데이빗 그렐자메르가 이끄는 GECA는 엠마누엘 파후드, 안드레아스 슐, 빅토리아 물로바, 스티븐 이셀리스, 다니엘 호프,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네만야 라두로비치, 안네 소피 폰 오테르 등 오늘날 가장 명망 높은 솔로리스트들과 협업한다. 또한 리처드 갈리아노, 디디에르 락우드, 티그랑 하마시안, 스테파노 볼라니, 제키 테라스 등 유수의 재즈 아티스트들과도 협업했다.

2017-2018 시즌에 GECA는 마리-니콜 르뮤, 사라 밍가르도, 토머스 햄프슨 등 오페라 가수 및 바이올리니스트 패트리시아 코파친스카야, 재즈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 첼리스트 장 기엔 케라스와 고티에 카뤼송, 배우 램버트 윌슨, DJ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체스코 트리스타노, 그리고 댄서이자 안무가인 후안 크루즈 등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공연한다.

제네바 카메라타의 최근 투어에서는 베를린 베를린 필하모니, 파리 샤텔레, 런던 킹스플레이스, 몽트뢰재즈 페스티벌, 에일랏 뮤직 페스티벌, 베이징 NCPA, 상하이 오리엔탈 아트센터, 모렐리아 페스티벌, 멕시코 센트로 나시오날 데 라스 아르테스 등에서 공연하였다.

이번 시즌 제네바 카메라타는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라인강우 페스티벌, 이스탄불 국제 음악 페스티벌, 파리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 등에서 공연하며 유럽 전역에서 15일간의 대대적인 투어에 들어가 신보에 담긴 프로그램으로 공연한다. 2018년 2월에 소니 클래식으로 발매된 이 음반은 오늘날 가장 매혹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야론 허만과 함께 작업하여 클래식과 재즈 세계관의 폭발적인 만남을 담아내었다.

Audacious, innovative, and adventurous, the Geneva Camerata is composed of the most brilliant and creative soloists of the young generation. Praised by the press as one of the world's most captivating ensembles, GECA performs music of all periods and styles, from baroque and classical to contemporary, electronic, jazz, rock, and world music. Presenting more than thirty-five concerts per season, the Geneva Camerata also creates eclectic multidisciplinary projects, bringing together music, dance, theatre, video, circus, and visual arts. Led by conductor David Greilsammer, GECA collaborates with today's most prestigious soloists, such as Emmanuel Pahud, Andreas Scholl, Viktoria Mullova, Steven Isserlis, Daniel Hope, Christian Tetzlaff, Nemanja Radulovic, Anne Sofie von Otter, Véronique Gens, Sandrine Piau, and Avi Avital. The orchestra has also performed with many celebrated jazz artists, such as Richard Galliano, Didier Lockwood, Tigran Hamasyan, Stefano Bollani, and Jacky Terrasson.

During the 2017-2018 season, GECA performs with opera singers Marie-Nicole Lemieux, Sara Mingardo, and Thomas Hampson, violinist Patricia Kopatchinskaja, jazz pianist Brad Mehldau, cellists Jean-Guihen Queyras and Gautier Capuçon, actor Lambert Wilson, DJ and pianist Francesco Tristano, as well as dancer and choreographer Juan Cruz Diaz de Garaio Esnaola.

As part of its recent touring, the Geneva Camerata has given concerts at the Berlin Philharmonie, Théâtre du Châtelet and Musée d'Orsay in Paris, Kings Place in London, Montreux Jazz Festival, Gstaad Sommets Musicaux Festival, Eilat Music Festival, NCPA in Beijing, Oriental Art Center in Shanghai, Morelia Festival, and Centro Nacional de las Artes in Mexico.

This season, the Geneva Camerata performs at the Hamburg Elbphilharmonie, Rheingau Festival, Istanbul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Paris Classique au Vert Festival, and embarks on an extensive fifteen-date tour throughout Europe, performing the programme of its new album. This recording, to be released by Sony Classical in February 2018, presents an explosive encounter between the worlds of classical and jazz, with one of today's most fascinating jazz pianists, Yaron Herman.

제네바 카메라타

GENEVA CAMERATA

MUSIC AND ARTISTIC DIRECTOR

David Greilsammer

VIOLINS

David Bogorad
Diego Castelli
Cécile Dorchêne
Timoti Fregni
Joanna Huszcza
Jonathan Keren
Gemma Longoni
Jesús Merino
Yumi Onda
Katharina Paul
Simone Roggen
Clémence Schaming
Annette Walther
Annina Wöhrle

VIOLAS

Caroline Donin
Ada Meinich
Elia Portabales

CELLOS

Céline Barricault
Ira Givol
Mara Miribung
Esmé de Vries

DOUBLE BASSES

Jérémy Bruyère
Julie Stalder

FLUTES

Roy Amotz
Ory Schneor

OBOES

Carlos del Ser
Sergio Simón Álvarez

CLARINETS

Benoît Savin
Mathieu Steffanus

BASSOONS

Povilas Bingelis
Fabio Gianolla
Gabriele Gombi

HORNS

Stéphane Mooser
Kathrin Williner

TRUMPETS

David Rodeschini
Sylvain Tolck

TROMBONE

Ronan Yvin

PERCUSSION

Damien Darioli

HARP

Céline Gay des Combes

KEYBOARD

Jacopo Raffae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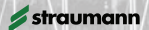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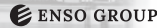


주한스위스대사관과 스위스기금은 제네바 카메라타의 첫 내한 공연을 축하합니다.

The Embassy of Switzerland and the Swiss Fund Korea congratulate Geneva Camerata on its first Korea tour.



© Elias Amari



ditto Fest Be the original 2018

<황금 듀오, 그 세 번째 무대>

용재 오닐 & 임동혁

2018.6.7 (목)

롯데콘서트홀

7

<워너비 듀오>

문태국 & 한지호

2018.6.9 (토)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9

<클라 부는 사나이>

김한

2018.6.10 (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10

<디어 마에스트로>

마이ски & 디토

2018.6.12 (화)

롯데콘서트홀

12

<다이내믹 라운드>

양상블 디토 Ep.10+1

2018.6.23 (토)

롯데콘서트홀

23

2018
CHAMBER
ORCHESTRA
SERIES

마이스키 70세 기념!
첼로의 거장이 선보이는
압도적인 차이콥스키

미샤 마이스키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지휘 슈테판 블라더 STEFAN VLADAR

MISCHA MAISKY & VIENNA CHAMBER ORCHESTRA

|||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33 · 모차르트 교향곡 No. 39, K. 543 |||



2018.6.16 SAT 5 PM 롯데콘서트홀

얼음여왕에서 생동감의 여신으로

마초 같은 여자 주인공에 매료됐던 적이 있다. 영화 <에이리언 2>에 나오는 시고니 위버 얘기다. 극중 엘렌 리플리 역의 그녀는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다. 펄스 라이플과 화염방사기를 들고 혈혈단신으로 동료를 구출하는 모습은 어둠 속의 불꽃처럼 강렬했다.

바이올리니스트 빅토리아 물로바를 떠올릴 때마다 시고니 위버 생각이 난다. 지난 2001년 첫 내한공연 'Through the looking glass in Seoul'에서 받은 인상이다. 남편인 첼리스트 매튜 발리 외에 밴드들이 펼친 크로스오버 콘서트에는 라벨과 비틀스, 비지스와 홀리스, 마일즈 데이비스와 웨더 리포트가 공존했다. 히피를 연상시키는 몸에 붙는 바지와 화려한 배꼽티 차림으로 음악의 넓은 바다를 거침없이 항해해나가는 물로바의 추진력은 영화 속 엘렌 리플리와 오버랩 됐다.

물로바는 본령인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도전을 이어갔다. 2000년대 이후에는 거트현을 장착한 과다니니 바이올린을 들고 고음악의 문을 두드렸다.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등과 음반과 공연장에서 협연했다. 스트라디바리로 연주한 현대악기 연주 때의 진득한 소스테누토와 감미로운 비브라토는 짧은 호흡에 리드미컬하고 상쾌한 연주로 탈바꿈했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과 철의 장막 속 소련 탈출

빅토리아 물로바는 1959년 구 소련 모스크바 근교의 주코프스키에서 태어났다.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드 코간에게 배웠다. 그러나 당시 코간은 학교보다는 무대 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물로바는 음악원에서 8년 동안 자신이 배웠던 스승은 코간이 아니라 그의 조수였다고 말했다.

물로바의 커리어는 스물한 살 때인 1980년 헬싱키에서 열린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시작됐다(다음 대회인 1980년에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일라 칼러와 공동1위에 올랐다). 2년 뒤 1982년 대망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소련의 세르게이 스타들러와 공동1위). 물로바는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준비할 때도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를 반복해서 들었다고 한다. 음악원 재학 중 외국인 학생들이 가져온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접한 팝과 록 음악은 클래식 못지않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후 물로바는 철의 장막 속 소련을 탈출할 계획을 세운다. 1년 뒤 1983년 물로바는 핀란드에 연주여행을 허가를 받았다. 함께한 사람은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16년 연상의 연인인 지휘자 박당 조르다니아(KBS교향악단과의 음반으로 알려졌다)였다. 소련 당국으로부터 받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핀란드 호텔에 두고 행동을 시작했다. 택시를 타고 국경을 넘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망명을 요청한다. 스웨덴 당국은 두 사람을 여느 동구권 망명자와 똑같이 취급했다. 주말이라 미국 대사관이 열 때까지 호텔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시했다. 스톡홀름의 KGB 요원들에게 발각되면 끝장이었다. 이틀간 식음을 전폐한 조르다니아와 물로바는 결국 미국 비자를 얻어 워싱턴 DC를 확보할 수 있었다.

뉴욕에서 활동하다 빈으로 거처를 옮긴 뒤 물로바는 명바이올리니스트로서 명성을 쌓는다. 1985년 데뷔 레코딩인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와 차이콥스키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필립스)을 필두로 1988년 앙드레 프레빈 지휘 로열 필과의 쇼스타코비치 1번, 프로코피예프 2번 협주곡, 1990년 네빌 마리너 지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의 멘델스존 협주곡(필립스) 등이 이어졌다. 1990년대 초반(필립스)과 2009년(오닉스)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신구 녹음은 각각 스틸 현을 장착한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거트현을 장착한 과다니니로 녹음됐다. 현의 딱 찬 양감과 명료한 서정성의 구반, 열은 비브라토로 구현한 밝은 색채감에 예리한 통찰이 돋보이는 신반은 바흐 연주의 금지탑에서 내려올 줄 모른다.

빈 시절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5년간 함께 지내며 내놓은 공동작업도 돋보였다. 1987년 아바도가 지휘한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비발디 '사계'(필립스)는 일찍이 바로크 음악을 해석하는 그녀의 자연스런 감각을 발견할 수 있는 수작이었다. 1992년 베를린 필과 일본 투어에서 라이브 레코딩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필립스)도 아바도 지휘 녹음이다.

물로바는 아바도와는 안 좋게 헤어졌다고 밝혔다. 이미 세 자녀를 둔 아바도가 혼외자식의 출산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 미샤가 태어난 뒤에도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다. 나중에 물로바가 먼저 움직였다. 아바도가 별세하기 2년 전 루체른 페스티벌에 가서 그를 만나 화해했다. 물로바는 오랫동안 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덜었고 재즈 연주자가 된 미샤와 아바도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도 물로바는 아바도를 '최고의 지휘자이자 치유자'였다고 말한다.

물로바의 자녀는 3명이다. 제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알란 브린드와의 사이에 딸 카티아를 뒀고, 첼리스트 매튜 발리와 결혼해 막내딸 나디아를 낳았다. 엄마를 꼭 닮은 얼굴의 나디아는 로열 발레단에 입단해 무용수로 활동 중이다.

진화를 거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

빅토리아 물로바와 제네바 카메라타가 2018년 6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오른다. 물로바는 일곱 번째 내한공연, 지휘자 데이비드 그렐자메르가 이끄는 제네바 카메라타는 첫 내한이다. 제네바 카메라타가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으로 문을 열고 물로바가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Op.64를 협연한다. 이후 거슈윈 '포기와 베스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베토벤 교향곡 8번을 연주한다.

첫 내한하는 제네바 카메라타는 클래식 뿐 아니라 재즈, 록, 가스펠 등 여러 장르에 열려 있는 체임버 오케스트라다. 이들은 매 시즌 음악, 춤, 연극, 서커스, 영상 등 다방면에 걸친 음악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있다. 지난 2월 발매된 제네바 카메라타의 소니 데뷔앨범 'Sounds of Transformation'에는 라벨 피아노 협주곡과 더불어 재즈 피아니스트와 드러머가 참가한 즉흥연주가 담겼다. 2010년부터 제네바 카메라타를 이끌고 있는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그렐자메르는 이스라엘 태생으로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공부했다. 뱃가드와 나이브에서 음반을 발매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얼음공주' 하면 보통 힐러리 한을 떠올린다. 그러나 얼음공주 이전에 '얼음여왕'이 있었으니 바로 빅토리아 물로바다. 냉전 시대 소련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아서인지 완벽을 추구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그녀가 변한 건 현 남편 매튜 발리를 만나 'Through the looking glass' 앨범을 발표하고부터다. 앞서 언급한 2001년 리허설 할 때 남편을 보며 미소 짓는 물로바를 봤다. 얼음여왕의 무표정은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얼음여왕 시절 네빌 마리너와의 멘델스존 협주곡이 정통 클래식의 엄격한 틀 안에서의 녹음이란 가치가 있다면, 2012년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한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와의 멘델스존 협주곡은 운화하고 따스하며 유창하고 침착하다. 오랜 실험과 도전으로 잔뼈가 굵은 즉흥성은 원전연주의 유연성과 맞닿아 있다. 이번 연주회는 얼음여왕 이후 생동감의 여신으로 진화한 물로바의 다채로운 컬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글 |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빈 필하모닉, 랑랑과 함께 떠나는 유럽 뮤직 크루즈 자유여행 9박 10일

아웃사이드 캐빈
크루즈 내 전일정 식사, 음료, 와인, 맥주, 생수 포함
지상 선상 공연 프로그램

전 세계의 음악애호가와 빈 필 오케스트라가 함께 탑승하여 매일 클래식 음악회를 여는 열흘간의 꿈 같은 크루즈 여행, 합리적인 비용과 자유로운 일정으로 떠나보세요!

- 여행 일자 : 2018년 9월 7일 ~ 16일 (9박 10일)
- 여행지 : 브레머하펜(독일) - 르아브르(프랑스) - 런던(영국) - 브뤼헤(벨기에) - 암스테르담(네덜란드) - 함부르크(독일)
- 상품가 : **695만원(4명 한정), 725만원(10명 한정)**
(현금가, 항공료 및 여행 경비 별도)

- * 본 여행은 모든 일정을 직접 계획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입니다.
- * 크루즈 선실 및 서비스, 공연티켓 포함
- * 항공료와 기항지 여행 경비 불포함
- * 발코니캐빈 및 패키지 상품은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공연1] **글라인드본 오페라 하우스** 빈 필하모닉 & 프란츠 뵘저 뉘스트
- [공연2]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빈 필하모닉, 랑랑 & 프란츠 뵘저 뉘스트
- [공연3]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빈 국립 오페라 & 아담 피셔 <피가로의 결혼>
- [공연4] 테너 **포트르 베찰라 리사이틀** (선상 공연)
- [공연5] 알마 도이처 **리사이틀** (선상 공연)
- [공연6] 알마 도이처의 오페라 <신데렐라> **하이라이트** (선상 공연)
- [공연7,8] 빈 필 앙상을 실내외 콘서트 (선상 공연)
빈 필 공개 리허설
연주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 렉처

* 본 여행일정과 프로그램은 아티스트 또는 현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와의 만남
빈 필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지휘자 프란츠 뵘저 뉘스트 그리고 아담 피셔, 피아니스트 랑랑, 테너 포트르 베찰라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신동 알마 도이처의 무대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항지와 선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음악여행
매일 열리는 선상음악회와 오픈 리허설을 비롯, 글라인드본 오페라하우스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그리고 최근 함부르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엘프 필하모니 기항지 콘서트까지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속 항구 르 아브르, 벨기에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브뤼헤 등 아름다운 소도시와 런던,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대도시를 거치는 음악여행. 크루즈선은 밤새 움직여 매일 새로운 기항지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멘델스존을 위하여

1980년 시벨리우스 콩쿨과 1982년 차이코프스키 콩쿨에서 우승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는 그저 '무표정'했다. 그러나 시퍼런 칼날처럼 완벽한 기교, 묵직하면서도 차가워서 폐부로 직격하는 강렬한 그 음색은 러시아 스킨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것만 같았다. 모든 이들이 열광했다. 또 한 명의 바이올린 여신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빅토리아 물로바.

이후 물로바의 음악적 여정은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다. 차갑게 버려낸 얼음단검 같았던 그녀의 젊은 시절 음색은 점차 부드러워졌고, 낭만주의 후기에 집중되어 있던 초기의 레퍼토리도 조금씩 폭이 넓어졌다. 숙성과 늙어감(혹은 낡아감)은 한곳 차이이지만 그녀의 음악은 고도의 '숙성'만을 거듭한 셈이다.

지금은 거트 현을 사용하는 바로크 시대의 원전 연주부터, 현대 악기를 사용하지만 고음역적 접근을 시도하는 절충주의적 연주, 그리고 부드럽고 유려한 정통 낭만음악의 해석까지 모든 것을 잘해내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 차가운 단검이 진화해 부드러운 은빛 광채가 감도는 아름다운 보석함이 된 느낌이다.

6월에 우리를 찾은 물로바가 연주할 음악은 펠릭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모두가 사랑하는 이 명곡은 멘델스존이라는 남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음악일 것이다. 모나지 않는 엄격함, 깊고 심오하면서도 균형 잡힌 시민적 교양의 어떤 결정체를 음악으로 아름답게 정화(精華)해낸 것 같다.

그것은 독일인들이 이룩해낸 가장 위대한 성과인지도 모른다. 과격하고 괴물 같은 천재 예술가보다는 시민사회의 큰 틀 속에서 자립하여 성장한 시민적 교양인을 향한 갈망 말이다. 바그너나 말러 같은 과묵한 천재들은 언제나 많았지만 - 사실 이걸 예술가들의 숙명이기도 할 것이다 - 멘델스존 같은 균형 잡힌 예술가는 역설적으로 귀하다.

많은 이들이 영화같이 드라마틱한, 굴곡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다간 그 예술가들의 삶과 음악을 동경한다. 나 또한 그러하였다. 그러나 멘델스존 또한 위대하지 않던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편안하게(사실 그리 편안하지도 않았지만) 음악가 생활을 했다며 한때 폼해(?)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의 음악은 독일적 균형감각의 절정을 자랑한다. 엄격한 고전적 질서 속에서도 유려하게 전개되는 낭만적 필치는 마치 지금은 화색빛 도시로 전략했지만 한때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라이프치히의 교양예술적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증언하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로바의 연주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어본다. 과다니니를 사용해 좀 더 담백한 연주를 들려주는 존 엘리어트 가디너와의 협연 레코딩과 함께, 1990년대 초반에 녹음한 보다 낭만적인 해석을 함께 소개한다(아마 이 녹음에서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썼을 것이다).

둘 다 물로바이고, 두 곡 다 멘델스존의 음악이다. 다른 듯 같고,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이 모습 또한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경이와 즐거움이 아닐런지.

글 | 황지원 (음악칼럼니스트, 한국 바그너협회 이사)

하늘과 바다와 음악樂
CIELOS WEEKENTOUR SPECIAL 1

통영스토리 1박2일



모두가 꿈꿔온 여정
자연과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한 여름 통영의 푸른 바다에서 펼쳐지는
음악의 감동에 초대합니다.



스페셜 프로그램

프로그램 1 | 8/17(금) 15시 30분
렉처 <통영을 만나는 가장 멋진 방법>

프로그램 2 | 8/17(금) 19시 30분
황인용 & 황덕호 토크콘서트 <나의 음악, 나의 인생>

프로그램 3 | 8/17(금) 20시 30분
밋더아티스트 & 콘서트 프리 렉처

프로그램 4 | 8/18(토) 9시
해안산책

프로그램 5 | 8/18(토) 13시
실내악 마라톤 콘서트 <An die Musik>

*출연: 임동혁, 지용, 황수미, 박지민, 문태국, 김봉소리, 김한

*본 공연은 총 4시간 정도 진행되며,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REDIA

- 여행일자 2018년 8월 17일(금)~18(토) 1박 2일
- 숙박 통영 스탠포드호텔
- 상품가 패키지 349,000원

클럽발코니&씨엘로스와 함께 하는 공감과 나눔의 문화여행

CIELOS WEEKENTOUR SPECIAL 시리즈는 아티스트, 문화 예술 명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에서 음악과 음악이야기를 나누고, 색다른 여행의 매력을 재발견하며 경험하는 클럽발코니 & 씨엘로스만의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음악여행의 하이라이트, 실내악 마라톤 콘서트 <An die Musik>

한 여름의 통영바다를 클래식으로 수놓을 실내악 마라톤 콘서트는 장장 4시간에 걸쳐 펼쳐지며 이번 여행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동을 느끼며 연주자를 응원하고 공연의 여운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음악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여정에 동행하세요.

문의 1577-5266 010-9799-5266 www.clubbalcony.com



INTERVIEW *with* VIKTORIA MULLOVA

당신은 칼날처럼 완벽한 기교로 러시아스쿨의 전통을 계승한 연주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기교'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테크닉은 매우 중요합니다. 테크닉 없이는 음악을 만들 수 없고, 바이올린으로 내고자 하는 소리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테크닉은 빠르게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굉장히 느린 작품들이 더 어렵고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음악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아본다면 무엇인가요?

제 커리어에서 중요한 순간들은 아주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핀란드의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과 제가 러시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1982년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도요. 그 밖에 중요한 순간들은 지금의 저를 음악가로 만들어준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비롯하여 지오반니 안토니니, 오타비오 단토네, 파보 예르비 등 여러 음악가들과 만난 순간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저에게 있어 중요했던 순간은 제 남편 매튜 발리와 만나고 함께 작업한 것이지요. 그는 저에게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소개해 줬어요. 저와 남편은 클래식이 아닌 장르의 레퍼토리들을 함께 탐험하며 음악가로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주로 유명합니다. 연습에 엄청난 시간을 매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연습을 하나요?

요즘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요. 새로운 곡을 연주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지요. 젊었을 때에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고, 좋은 테크닉을 길러 왔죠. 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섬세하며 많은 시간의 연습이 필요했어요. 가끔 저는 공연이나 심지어 연습도 안 하고 몇 달을 쉬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휴식으로는 2004년에 8개월 동안 쉬면서 즐긴 적이 있죠.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인도와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바이올린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주를 시작 하는 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쉬웠죠.

#이번에 제네바 카메라타와 함께 내한합니다. 어떤 오케스트라인가요?

제네바 카메라타는 최근 몇 년간 제가 함께 연주해 온 굉장히 훌륭한 체임버 오케스트라인입니다. 지휘자 데이빗 그렐자메르가 굉장한 영감을 가지고 이끄는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렐자메르의 피아노 앨범인 <스카를라티/케이지 Scarlatti/Cage>를 들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다니니와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렇게 두 개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곡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두 악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진 두 악기는 서로 많이 달라요. 특히 제가 과다니니에 현을 끼우고 바로크나 클래식 중 서로 다른 타입의 활을 사용하면요. 또한 저는 피치를 4300이나 415로 낮추는데 그렇게 하면 음색이 많이 바뀝니다. 바로크 레퍼토리는 이렇게 해 두고 연주하면 훨씬 더 쉬워요. 바로크 음악이 작곡되었을 때에 그 타입의 바이올린과 활을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당신에게 있어서 '바이올린'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4살 때 부모님이 가장 싸고 가장 작은 바이올린을 사서 손에 쥐어주셨던 것이 바이올린에 대한 저의 최초의 기억입니다. 어릴 적 러시아에서 연습을 할 때에는 폐쇄적인 공간과 분위기에서 오직 연습 연습만 생각했죠. 친구나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자체의 기쁨은 비교적 늦게 깨달았어요. 아주 옛날에는 연주를 안 좋아할 정도였죠. 아시다시피 자유를 찾아 러시아를 떠나고, 점점 제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죠.

수많은 후배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는 여전히 당신을 롤모델로 삼습니다. 그들에게 해줄 조언은요? 특히 클래식계에서 여성 아티스트로 산다는 건 다양한 부분에서 여전히 힘듭니다. 마음과 태도 면에서 특히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부분이 있다면요.

여성 후배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언을 준다면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져라'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바이올리니스트는 많지만 '위대한' 연주자는 많지 않죠. 기본 기술을 잘 다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처음에 기본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귀를 열고 모든 것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음악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요.

음악으로 영원히 기억될... 내빈 여러분께 경음 기리며

W.A.MOZART

Piano Concerto No.21 in C Major, K.467

Piano Concerto No.8 in C Major, K.246

ORCHESTRA ENSEMBLE SEOUL

AMADEUS

손열음의 <아마데우스>

2018년 10월 7일(일) 5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unday, October 7, 2018, at 5PM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주최 CREDIA INTERNATIONAL yesm 후원 KOREAN AIR 티켓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춤과 연극이 있는 클래식, 젊은이도 맘껏 즐기세요

지휘자 그렐라메르 첫 한국 무대 · 고전과 현대음악 자유롭게 연결 · 아이들 장난감을 악기로 쓰기도

다음과 곡들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20세기 작곡가 찰스 아이브스 '대답 없는 질문',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거쉬윈 '포기와 베스' 주제로 새로 만든 변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8번. 한참을 들여다봐도 답이 시원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문제의 출제자는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데이비드 그렐라메르(41). 그가 마련해놓은 답은 '사람의 목소리'다. 본지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렐라메르는 "이 모든 작품에 사람의 목소리라는 공통점이 들어있고 이 곡들을 한 연주회에 모았다"고 말했다. 이 네 곡은 그가 2013년 만든 연주 단체인 제네바 카메라타의 다음 달 첫 내한 공연에서 연주된다.

그렐라메르는 이 작품들 사이의 연관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아이브스의 곡은 아름다운 현악기의 화음으로 시작해 갑자기 트럼펫이 울리는데, 이것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같이 몽환적이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모든 부분이 노래다. 특히 바이올린이 등장할 때는 엄마가 아이에게 불러주는 자장이 같다. 거쉬윈의 '포기와 베스'는 오페라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끌고 간다. 또 베토벤은 8번 교향곡을 쓸 때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에게 관심이 많았다. 이 교향곡 곳곳에서 로시니 오페라 아리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렐라메르는 연주곡목에 수수께끼를 숨겨놓길 즐긴다. 피아니스트로서 그는 바로크 시대 스카를라티의 소나타와 20세기 존 케이지의 자동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한 번에 연주했다. 피아노 두 대를 한 무대에 놓고 앞뒤로 돌려 '스카를라티:케이지:소나타들'이란 제목의 독주회를 열었을 정도다. 이 두 곡 사이의 연관성은 뭘까. 그렐라메르의 답은 "혁신성"이다. "두 작곡가의 시대는 20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지역도 달랐지만 당대의 스타일을 따르는 대신 모험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그는 이처럼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작곡가 작품을 배치하고 의미를 찾아낸다. 17세기 바로크와 20세기 현대의 작품, 18세기 고전시대의 작품과 20세기 재즈 등을 번갈아 배치하는 식이다. 뉴욕타임스의 앤서니 토마시니는 지난해 9월 그의 독주회를 두고 "연주도 잘하는 피아니스트지만 공연 프로그램은 평범하지 않고 급진적이기까지 하다"고 평했다.

그렐라메르가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기존 클래식 공연장이 너무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지휘를 공부한 그는 "음악회장에 나이 많은 청중뿐이고 대부분의 오케스트라와 연주자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주하는 레퍼토리나 프로그램 구성 방식도 수십년 동안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미래를 개발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동료와 함께 제네바 카메라타를 만든 이유다. 그는 "1부에는 정통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2부에는 춤·연극·서커스와 협업을 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 청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유치원에서 쓰는 장난감 여러 개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모차르트부터 마돈나까지 연주하기도 한다.

한국 공연의 연주 목록에 담긴 수수께끼에 청중은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그렐라메르는 "고른 곡들도 새롭고, 해석하고 연주하는 방식도 참신하기 때문에 청중이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 김효정 중앙일보 기자 (2018.5.28 기사)

요요 마의 손이 닿으면
낮선 음악도 가장
흥미로운 음악이 된다!

HYOSUNG CULTURE SERIES 5

효성과 함께하는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THE SILK ROAD ENSEMBLE WITH YO-YO MA

2018년 10월 17일(수)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WED OCT 17, 2018 8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The Class Hyosung

더클래스 효성은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철학을 지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선택한 공식딜러입니다.

효성그룹이 심혈을 기울여 설립한 더클래스 효성은 안정적이고 차별화 된 서비스,
끊임없는 투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만의
퍼스트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센터 :1899-0808

Mercedes-Benz



더클래스 효성

- 강남대로 전시장 02) 575-7500
- 송파 전시장 02) 3434-4000
- 분당정자 전시장 031) 786-6000
- 안양평촌 전시장 031) 689-8900
- 구리 전시장 031) 579-0900
- 용인수지 전시장 031) 5183-9200
- 스타필드하남 전시장 031) 8072-8900
- 청주 전시장 043) 299-9000
- 천안 전시장 041) 620-7000

빅토리아 몰로바 & 제네바 카메라타

지휘 데이빗 그렐자메르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